

한국 작업치료사의 평가도구 사용에 관한 연구

박소연*, 유은영**

*제주한라대학 작업치료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및 보건과학연구소

Abstract

The Use of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by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Park, So-Yon*, M.P.H., O.T., Yoo, Eun-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Jeju Halla Colleg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ealth Science College,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e of occupational assessment tools and their use by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Method: Data was obtained from October 13, 2001 to December 30, 2001 by means of a survey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were 96 occupational therapists (general hospitals, university-related hospitals, rehabilitation center, etc.).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The length of time for initial evaluation was 42 minutes per one patient and reevaluation periods were every 3 months or as functional changes were detected. Among the assessment tools, the most frequently used tools were: Purdue Pegboard Test (47.9%) for assessing motor area,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56.3%) and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54.2%) for cognitive perceptual assessments,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56.3%) for daily activity assessment,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51%) for development assessment, Sensory Profile (14.6%) for sensory integration assessment, and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16.7%) for occupa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at the choice of evaluation tools may be

depended on the administration length of time and simple procedures. Based on the results, provisions of more extended educational opportunities would promote the use of a greater variety of standardized assessment tools by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Key Words : Assessment, Evaluation tool, Occupational therapist.

I. 서론

작업치료사들은 다양한 형식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현 기능과 그 잠재능력을 평가해 왔다(Hasselkus와 Safrit, 1976). 평가(evaluation)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이다(AOTA, 1995; Maurer 등, 1984). 평가의 주된 목적은 주어진 상황과 시간 안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Asher, 1996),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 및 비교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측정된 영역의 미래의 수행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Tecklin, 1994). 이와 같이 대상자의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사용은 평가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그 결과를 이용한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한다(Montgomery와 Connolly, 1987).

일반적으로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관찰(observation), 면접(interview),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한 평가, 혹은 비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한 평가, 의무기록 등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Pedretti와 Early, 2001). 이중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이용은 작업치료 평가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준화된 평가도구는 평가 시행과정과 점수체계에 대한 지침이 있고, 통계학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검사도구이다. 또한 표준집단에 대한 규준(norm)이 제시되어 있어, 검사결과를 표준집단과 비교하여 해석이 가능하므로 작업치료 평가에 있어서 정량화된 자료의 제시가 가능한 평가방법이다(AOTA, 1996; Asher, 1996; Atchison, 1987; Tuckman, 1978).

작업치료 분야에서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은 그 제작목적에 따라 크게 감별측정을 위한 것과 평가적 측정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Boyce 등, 1991). 감별측정(discriminative measure)을 목적으로 한 도구들은 정상인과 비교하여 장애가 있는지를 가려내고 진단하는 것이고, 평가적 측정(evaluative measure)도구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치료전후의 기능수행정도 또는 발달상태의 변화 등을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Boyce 등, 1991; Rosenbaum 등, 1990).

치료사가 효과적으로 대상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환자의 기능장애에 따른 평가방법 및 도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Asher, 1996; Pedretti와 Early, 2001). 평가도구의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대상자의 진단명, 병력, 생활양식, 흥미, 욕구, 가치,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그 밖의 검사의 목적, 상황, 제한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Asher, 1996; Pedretti와 Early, 2001).

이와 같이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영역과 수많은 평가도구가 이용되는 전문분야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평가도구에 대한 교육의 부족과 사용자마다 정확한 사용법을 지키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해 그 기초가 되는 평가도구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정도를 알아보고 우선 보급되어야 하는 평가도구와 표준화된 교육기준 마련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작업치료사가 사용하는 평

가도구를 영역별로 알아보고, 그 사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1년 작업치료면허취득자를 포함하여 2001년 10월 현재, 현직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평가도구 사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연구과정

1) 설문지 작성

작업치료평가도구에 대한 설문지는 먼저 작업치료사의 연령 및 임상경력과 근무기관의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일반적 항목과 임상에서 사용되는 평가도구에 대한 설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평가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업치료사 5인의 의견을 모아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소개되어 있는 평가도구 목록을 작성하였고, 2001년 미국 작업치료협회의 권장할만한 평가도구 지침서(Asher, 1996)를 참고하여 표준화된 최종 작업치료 평가도구 목록을 결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영역별 평가도구의 분류는 운동기능 평가, 인지 및 지각평가, 일상생활평가, 발달평가, 감각통합검사, 직업 및 작업수행평가, 이학적 검사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적인 검사도구 이름을 제시하였다. 영역별 평가도구의 사용유무는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2)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

1차 배포 및 수거는 2001년 10월 13일 추계 작

업치료학술대회에 참석한 인원 중 16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78부를 수거하였으나, 10부는 주요 응답내용이 빠져 있어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차 배포 및 수거는 2001년 11월 7일,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으나 설문지를 받아보지 못했던 회원을 포함하여 144명에게 반송우표와 봉투를 동봉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2001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일까지 도착한 29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분석은 1차와 2차에 걸쳐 수거한 설문지 96부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PC 11.0 버전을 이용하였고, 평가도구 사용빈도, 평균, 백분율 등을 알아보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25세 이하가 32명(33.7%), 26~35세가 54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36세 이상이 8명(8.4%)이었고,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8.5세였다. 근무기간은 2년 이하가 33명(34.4%), 2~5년이 28명(29.1%), 5~10년이 26명(27.1%), 10년 이상이 9명(9.4%) 순으로 대상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4.7년이었다.

근무기관은 대학병원 37명(38.5%), 종합병원 22명(22.9%), 복지관 15명(15.6%), 재활병원 14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하루 치료환자수는 11~20명이 전체의 54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치료환자수는 16명으로 조사되었다. 한달 신규환자수는 10명 이하가 68명(73.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 평균 13명의 신규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연령 (세)	25세 이하	32	33.7
	26~35세	54	57.9
	36세 이상	8	8.4
근무기간 (년)	2년 미만	33	34.4
	2~5년 미만	28	29.1
	5~10년 미만	26	27.1
	10년 이상	9	9.4
근무기관	대학병원급	37	38.5
	종합병원급	22	22.9
	준종합병원	2	2.1
	복지관	15	15.6
	개인병원	2	2.1
	수용시설	1	1.0
	재활병원	14	14.6
	기타	3	3.1
치료환자 (명/1일)	10명 이하	22	23.2
	11~20명	54	56.8
	21명 이상	19	20.0
신규환자 (명/1월)	10명 이하	68	73.9
	11~20명	15	16.3
	21명 이상	9	9.8

2. 연구대상자의 평가 관련 정보

응답자의 평가대상은 중복대답을 허용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64.6%가 성인환자를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발달장애(47.9%), 정신장애(17.7%), 손기능(13%), 직업능력(1%)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평가시 소요시간은 21~40분이 전체응답자의 52.7%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당 초기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2분으로 조사되었다. 입원환자의 평가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초기, 중기, 퇴원 전에 평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고, 초기와 퇴원 전에 평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4.8%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평가주기에 대

한 질문에는 3개월마다 전체 응답자의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능적인 변화가 있을 때(28%)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평가관련 정보

변수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평가 대상	성인	62	64.6/100
	발달장애	46	47.9/100
	정신장애	17	17.7/100
	손기능	13	13.5/100
	직업능력	1	1.0/100
	기타	2	2.1/100
초기 평가 시간	20분 이하	16	16.8
	21~40분	50	52.7
	41~60분	17	17.9
	61분 이상	12	12.6
	초기평가만	5	7.2
입원 환자 평가	초기와 퇴원전	24	34.8
	초기, 중기, 퇴원전	29	42.0
	초기, 중기, 퇴원전, 추후	11	15.9
	기타	2	2.3
평가 주기	1개월	15	17.0
	3개월	29	33.0
	6개월	17	19.3
	기능적인 변화가 있을 때	25	28.4
	기타	2	2.3

3. 운동기능 검사도구의 사용빈도

본 항목은 검사도구의 이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복응답을 허용하였고, 사용하는 경우 그 빈도를 알아보았다. 제시된 도구는 손기능에 관련된 검사도구로 현재 국내 작업치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도구는 Purdue Pegboard(47.9%), Manual Function Test(45.8%), Grooved Pegboard Test(41.7%), Jebsen Hand Function

Test (36.5%), O'coner Finger Dexterity Test (32.3%), 9-hole Pegboard Test (19.8%), Minnesota Rate of Manipulation Test (18.8%) 순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도구는 9-hole Pegboard Test로 26회/월의 사용을 하였다(표 3).

4. 인지 및 지각검사 사용빈도

인지 및 지각검사의 이용에 대한 응답은 시지각 검사인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MVPT)는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는 54.2%, 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 (LOTCA)는 30.2%,

Minnesota Spatial Relation Test는 30.2%, Cognitive Capacity Screening Examination (CCSE)은 17.7%, Neurobehavioral Cognitive Status Examination (NCSE)은 10.4%, Allen Cognitive Level Test는 4%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용빈도수가 가장 많은 검사도구는 MMSE로 월평균 10.4회 사용하였다(표 4).

5. 일상생활동작 검사도구 사용빈도

일상생활동작 검사도구로 가장 많은 사용빈도를 보인 검사도구는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로 전체 응답자의 56.3%가 사용하고 있으며, Modified Barthel Index (MBI)는 응답자의 35.4%가 사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사용빈도는

표 3. 운동기능 검사도구 사용빈도

검사도구명	사용자(명)	백분율(%)	사용빈도(회/월)
Purdue Pegboard	46	47.9	8.6
Manual Function Test	44	45.8	9.5
Grooved Pegboard Test	40	41.7	8.0
Jebsen Hand Function Test	35	36.5	5.6
O'coner Finger Dexterity Test	31	32.3	4.1
9-hole Pegboard Test	19	19.8	26.5
Minnesota Rate of Manipulation Test	18	18.8	2.9
기타	13	13.5	5.2

표 4. 인지 및 지각검사 사용빈도

검사도구명	사용자(명)	백분율(%)	사용빈도(회/월)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54	56.3	7.0
Allen Cognitive Level Test	4	4.2	1.8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	52	54.2	10.4
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	29	30.2	1.7
Minnesota Spatial Relation Test	29	30.2	4.4
Cognitive Capacity Screening Examination (CCSE)	17	17.7	2.5
Neurobehavioral Cognitive Status Examination	10	10.4	5.2
Middle Sex Elderly Assessment of Mental State	1	1.0	10.0

표 5. 일상생활동작 검사도구 사용빈도

검사도구명	사용자(명)	백분율(%)	사용빈도(회/월)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54	56.3	18.2
Modified Barthel Index (MBI)	34	35.4	13.1
Katz Index of ADL	1	1.0	1.0
Klein-Bel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1	1.0	1.0
기타	4	5.2	1.5

표 6. 발달검사 평가도구 사용빈도

검사도구명	사용자(명)	백분율(%)	사용빈도(회/월)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49	51.0	4.1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15	15.6	1.5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15	15.6	2.0
Erhardt Developmental Prehension Assessment	15	15.6	1.7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	12	12.5	3.7
Bayley Scales of Infants Development	4	4.2	8.5
Gesell Developmental Test	9	9.4	3.6
Portage Developmental Checklist	3	3.1	1.0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	3	3.1	5.3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3	3.1	1.0
Gross Motor Performance Measure (GMPM)	0	0.0	0.0

18.2회, 13.1회의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6. 발달검사도구 사용빈도

발달검사 도구 중에 가장 많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것은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로 전체 응답자의 51%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15.6%,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15.6%, Erhardt Developmental Prehension Assessment 15.6%,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 12.2%, Gesell Developmental Test 9.4%, Bayley Scales of Infants Development 4.2% 순으로 나타났다(표 6).

7. 감각통합검사 도구의 사용빈도

감각통합기능 검사도구의 사용빈도는 Sensory Profile이 전체 응답자의 1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eGangi-Berk Sensory Integration Test 6.3%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용빈도는 각각 2.7회, 1.2회로 사용정도가 낮았다(표 7).

8. 직업 및 작업수행 평가도구 사용빈도

제시된 평가도구 중에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로 전체 응답자의 16.7%가 사용하고 있고, 그 외의 검사도구는 전체 응답자의 5% 미만의 사용률을 보였다(표 8).

표 7. 감각통합기능 검사도구 사용빈도

검사도구명	사용자(명)	백분율(%)	사용빈도(회/월)
DeGangi-Berk Sensory Integration Test	6	6.3	1.2
Sensory Integration Praxis Test	3	3.1	1.0
Southern California Sensory Integration Test	1	1.0	1.0
Sensory Profile	14	14.6	2.7

표 8. 직업 및 작업수행 평가도구 사용빈도

검사도구명	사용자(명)	백분율(%)	사용빈도(회/월)
MaCarron-Dial System	2	2.1	14.5
Valpar Component Work Sample	2	2.1	4.5
Baltimore Therapeutic Work Simulator(BTE)	2	2.1	2.0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COPM)	16	16.7	6.4
기타	3	3.1	10.0

표 9. 이학적 검사 사용빈도

검사명	사용자(명)	백분율(%)	사용빈도(회/월)
관절가동범위 검사	62	64.6	13.8
감각검사	62	65.6	11.3
근긴장도 검사	55	57.3	14.2
도수근력 검사	53	55.2	12.5
신경반사 검사	15	15.6	16.5
기타	1	1.0	3.0

9. 이학적 검사의 사용빈도

검사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학적 검사의 경우 감각검사가 전체 응답자의 65.6%, 관절가동범위검사 64.6%, 근긴장도 검사 57.3%, 도수근력검사 5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9).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이 사용하는 평가도구의 종류와 그 사용빈도에 대하여 운동영역, 인지 및 지각영역, 일상생활동작영역, 발달검

사영역, 감각통합검사영역, 직업 및 작업수행영역 그리고 이학적 검사 영역으로 알아보았다.

치료현장에서 환자의 전체적인 평가과정 중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속하나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사용은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주고, 기능 수행정도와 발달수준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원활하게 해준다(Asher, 1996; Montgomery와 Connolly, 1987). 또한 현재 대상자의 기능수준을 보호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치료 전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Tecklin, 1994). 이러한 이유로 치료사들이 평

가도구를 선정할 때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적절한 검사도구를 선별해야 한다.

박혜정(1999)의 연구에 의하면 평가도구에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제한된 치료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현재의 임상적 여건이 평가도구를 사용하기에는 불리하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체계상 각각의 평가도구로 평가한 내용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를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로, 평가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도구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교육경험 또는 교육기회가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치료사들이 선호하는 검사도구는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수준을 감별(screening) 하는 도구들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운동기능 검사의 경우 제시된 도구가 대부분 손기능과 관련된 검사도구로, 다른 영역의 검사도구들과 비교하여 사용률이 높았다. 사용순위는 Purdue Pegboard가 47.9%, Manual Function Test는 45.8%, Grooved Pegboard Test는 41.7%, Jebsen Hand Function Test는 36.5%, O'coner finger dexterity test는 32.3%, 9-hole Pegboard Test는 19.8%, Minnesota Rate of Manipulation Test는 18.8%였다. 손기능과 관련검사도구의 사용률이 높은 이유로는 검사시행 방법이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치료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지 및 지각검사의 경우 사용률이 가장 높은 도구로 MVPT (56.3%)와 MMSE (54.2%)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이들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는 운동기능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동작 검사도구에는 FIM이 전체 응답자의 56.3%로 가장 많았는데, 이 영역에서 FIM의 사용률이 높은 것은 운동기능검사와는 달리 검사

시간에 대한 이유보다는 국내에 가장 잘 소개되어 있고,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타당도가 높은 검사도구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Granger 등, 1993). 그 외에 일상생활동작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로 MBI 35.4%, katz Index of ADL 1%, Klein-Bel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kills 1%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평가도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검사의 경우는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DDST)로 전체 응답자의 51%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15.6%,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15.6%, Erhardt Developmental Prehension Assessment 15.6%,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 12.2%, Gesell Developmental Test 9.4%, Bayley Scales of Infants Development 4.2% 순으로 나타났다. DDST가 전체 응답자의 51%로 가장 많았는데, 이 도구는 아동의 발달상태를 감별(screening)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의 특징은 정상아동과 발달지연 유무를 감별하는 도구로 현재 아동의 발달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예후를 진단하는 도구는 아니다(Frankenburg와 Dodds, 1992). 그러므로 발달검사를 통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도구와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발달검사 도구의 사용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통합기능 검사의 경우 Sensory Profile이 사용이 전체응답자의 14.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DeGangi-Berk Sensory Integration Test가 6.3%로 나타났다. 감각통합치료의 대표적인 도구로 Sensory Integration and Praxis Test는 사용을 위해 특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도 검사제작 기관에 의뢰해야 하므로(Asher, 1996), 국내에서는 그 사용정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평가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검사 도구로는 MaCarron-Dial System, Valpar Component Work Sample, Baltimore Therapeutic Work Simulation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명 내외로 매우 적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내 직업평가분야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인력이 적고, 설문내용에 포함된 직업평가도구의 종류의 다양성이 적은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작업수행 평가 도구는 COPM의 사용률이 16.7%로 16명의 치료사가 사용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 도구는 환자 중심의 작업치료 목표를 세우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Asher, 1996)로 2000년 세미나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으나 국내 여건상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한 검사 도구가 필요하지 않는 이학적 검사의 경우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감각검사가 전체 응답자의 65.6%, 관절가동범위검사 64.6%, 근긴장도 검사 57.3%, 도수근력검사 5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손기능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방법이 수월하고 특정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 그 사용률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각 영역별로 사용되는 검사도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작업치료사가 다양한 평가도구의 사용의 제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검사도구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평가도구 사용 제한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국내 작업치료 평가도구의 보급과 활성화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작업치료평가 도구에 대한 사용정보를 알아보고자 2001년 10월에서 12월까지

설문연구를 실시하였다. 평가도구의 분류는 운동기능 평가 도구, 인지 및 지각평가 도구, 일상생활 평가 도구, 발달평가 도구, 감각통합검사, 직업 및 작업수행평가 도구, 이학적 검사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2분, 평가주기는 3개월과 기능적인 변화가 있을 때 평가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도구는 운동기능 평가에서는 Purdue Pegboard Test (47.9%)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인지 및 지각검사에서는 MVPT (56.3%)와 MMSE (54.2%)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동작 검사는 FIM(56.3%)이, 발달 검사에서는 DDST (51%)가 가장 많았고, 감각통합검사는 Sensory Profile (14.6%)이, 작업수행 평가도구는 COPM (16.7%)으로, 이학적 검사에서는 감각검사(65.6%)와 관절가동범위 검사(64.6%)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의 종류와 사용빈도는 검사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들이 평가도구를 선별하는 기준과 사용 제한 요인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작업치료평가 도구의 다양화와 사용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박혜정. 발달지연 아동 및 뇌성마비 아동의 평가 실태와 물리치료사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Clarification of the use of the terms assessment and evaluation. Am J Occup Ther. 1995;49:1072.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 (AOTA). Standards of Practice for Occupational Therapy: Reference manual of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Bethesda, The Association. 1996.
- Asher IE.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An annotated index. Bethesda, 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96.
- Atchison B. Selecting appropriate assessments. Physical Disabilities Special Interest Section Newsletter.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87;10:2.
- Boyce WF, Gowland C, Rosenbaum PL, et al. Measuring quality of movement in cerebral palsy: a review of instruments. Phys Ther. 1991;71:813-819.
- Frankednburg WK, Dodds JB. Denver II Training Manual. Colorado, Denver Developmental Materials. 1992.
- Granger CV, Cotter AC, Hamilton BB, et al. Functional assessment scales: a study of persons after stroke. Arch Phys Med Rehabil. 1993;73:133-138.
- Hasselkus BM, Safrit MJ. Measurement in occupational therapy. Am J Occup Ther 1976;30:419-436.
- Maurer P, Barris R, Bonder B, et al. Hierarchy of competencies relating to the use of standardized instruments and evaluation techniques by occupational therapists. Am J Occup Ther. 1984;38:803-804.
- Montgomery PC, Connolly BH. Norm-referenced and criterion-referenced tests. Phys Ther. 1987;67:1873-1876.
- Pedretti LW, Early MB.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skill for physical dysfunction. 5th ed. St. Louis, Mosby. 2001.
- Rosenbaum D, Russell DJ, Cadman DT, et al. Issues in measuring change in motor function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 special communication. Phys Ther. 1990;70:125-131.
- Tecklin JS. Pediatric Physical Therapy.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94.
- Tuckman BW. Conducting Educational Research.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8.